

# 저금리시대 은행 생존위해 새 먹거리 찾는다

### 장기저성장속 예대마진 증가함에도 이자 이익은 감소 국민은 '부동산 중개앱'·신한은 '중고차 서비스' 제공

은행의 주 수입원인 이자이익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유통업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예대마진은 2.17%포인트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 지난해 12월부터 석달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예대마진이 증가하면 은행의 수익성도 커진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주 수입원인 이자이익이 감소. 예대마진이 늘었음에도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34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3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한은행의 이자이익은 4조1647억원으로, 4조3871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2224억원이 줄었다.

KB국민은행의 이자이익도 같은 기간 4

조9715억원에서 4조7117억원으로 2598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은행들의 유가증권 관련 이익과 수수료이익 등을 포함한 비이자이익은 5조9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수익원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중개 앱(App)인 '다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션3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다방 이용자에게 부동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중고차 시세와 매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한 중고차서비스를 시작했다. 2010년 자동차대출 상품인 '신한 마이카(MyCar)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의 마이카대출 취급실적은 25일 기준 2조2599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이자이익이 4조4830억원에서 4조7620억원으로 늘었음에도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적극적이다.



T-SDN 상용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KT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이하 T-SDN)를 전국 상용화해 기존보다 약 100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우리은행은 온라인 쇼핑물인 오픈마켓을 오는 7월부터 '위비정터' (가칭)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은행이 유통업에 뛰어들 것은 처음으로, 우리은행은 자사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이 위비정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KEB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KEB하나은행은 임대주택사업에 나서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토교통부와 도심형 뉴스테

이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 하나은행 지점을 재건축해 뉴스테이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은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진수기자

### 금융당국, 총선 앞두고 '정치테마주' 집중관리

금융당국이 다음달 13일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정치테마주'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크게 두 가지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 인터넷 증권방송, 증권카페,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정보 전달 매체와 투자포럼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한다.

또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성주, 고가매수 및 연속적인 단주 주름 등 이상 매매 주문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조기경보시스템, 온라인상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유의미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정보를 방동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위 풍문·보도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감원과 공동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필요시 신속처리절차(Fast-Track)를 통한 검찰의 사법처리도 강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매매보다는 회사의 내재가치를 살펴 본 후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진수기자

## 채무조정 대상자 원금 감면율 60%로 올려

#### 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적용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확대 방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대상자의 원금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돈 값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29일 '채무조정'과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이들에다.

현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해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대출액은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최대 원금 감면율은 70%다.

앞으로는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대상자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상환구조도 분할상환 외에 뒤로 갈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보다 탄력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경우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약 85억

원의 원금감면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 파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 동안 총 58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총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지난 2월까지 총 49만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5년간 32만6000명 채무조정 지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인진수 기자

### KIST 출범 50주년 기념행사 풍성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공지를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 연구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먼저 정부는 지난 50년 간 과학기술 주요 성과를 총정리한 '과학기술 50년사'를 발간한다. 과학 기술 및 정책 분야별 업적을 조망하는 '과학기술 50년 대토론회 시리즈'도 추진한다.

전국 5개 과학관은 '4월 과학문화제'를 4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과학 문화제는 사이언스 북콘서트, 드론체험, 사이언스메이크업 등 가족까지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꾸려진다.

4월 3일에는 과학기술 50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방송된다.

제49회 과학의 날·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은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계 주요 인사 및 수상자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진수기자



### 스팸차단앱 '후후' 5월 별도법인 독립

KT CS가 운영하는 스팸차단앱 '후후'가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다. KT그룹의 고객서비스 계열사 KT CS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후후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법인 '후후엔컴퍼니(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후후엔컴퍼니는 물적분할 방법으로 설립되며 분할 기일은 5월 1일이다. KT CS는 후후엔컴퍼니 지분을 100% 보유하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갖는다. 외부투자유치 및 전략적 사업제휴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후후는 1900만 누적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후후를 통해 식별되는 통화 및 문자건수는 월평균 18억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유태열 KT CS 대표이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앱 시장에서 유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후의 분사를 결정했다"며 "국내 1위 스팸차단앱 후후의 시장 경쟁력을 통해 고객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